

## 김수영 시 영역에 관한 고찰

김 효 중  
(대구가톨릭대)

### 1. 서론

전통적으로 번역의 목적은 원문의 내용과 문체를 원전에 충실히 번역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최근 세계가 문화의 시대로 변모하고 발달해가면서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관계로 사실상 이 목표를 실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어의 구조적 차이와 문체론적 특성 등 언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려움과 번역자의 미흡한 언어 구사능력이 번역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번역이 단순한 언어상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데리다가 번역은 “어느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어느 한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로 전환하는 규칙적 전이이다.”(Derrida 58)라고 주장한 사실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특히 시 번역은 시가 지닌 특이성과 다른 언어와의 차별성 및 시인만의 고유한 정서 표출에서 드러나는 미묘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은 가중되며 오래 전부터 번역가능성 시비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켜 온 것도 이러한 요인 때문이다.

그래서 “번역은 언어기호의 단순한 전환이 아니고 언어기호라는 형식 속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정신, 세계관, 넓은 의미에서 문화의 역동적이고 고유한 내용이 농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의 표현형식으로 바꾸어 재생하는 창조적이고 예술적 행위”(김효중 214)임을 부인할 수 없다. 간혹 사람들은 우리의 사고와 언어의 비논리성이 일상적인 언어생활은 물론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오역이 생긴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결국 번역에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을 극복하고 좋은 번역을 생산하려면 번역자가 양국의 문화와 언어에 통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번역가는 시인 못지않게 영감과 재능은 물론 작품과의 친화성을 지니고 있을 때 더욱 훌륭한 번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시 번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통적인 번역방법 속에 잊혀진 본질적 요소들을 복원하여 작품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데에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sup>1)</sup>

근래 새천년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문학의 세계화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시 번역이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한국시문학사에서 거론되는 상당수 시인들의 작품이 영역되어 국내외에서 널리 소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시의 양적 팽창과 함께 간과해서 안 될 일은 번역비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번역시를 원시와 비교하고 분석하여 오역을 가려내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국문학의 세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작업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김수영(1921-1968)의 시 번역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가 후대 문인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만큼 큰 것도 번역 동기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조선일보> (1998. 7. 31)가 뽑은 대표 평론가 50인의 설문조사에서 김수영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시인의 한 사람으로 1위였는가 하면, 다음해

1) 이 점과 관련하여 T. S. Eliot이 언급한 다음의 내용이 시사적이다.

“Translation is valuable by a double power of fertilizing a literature by importing new elements which may be assimilated, and by restoring the essentials which have been forgotten in traditional literary method. There occurs, in the process, a happy fusion between the spirit of the original and the mind of the translator: the result is not exoticism but rejuvenation.” (T. S. Eliot, “The Noh and the image”, *Egoist*, 1917)

같은 신문의 설문조사(1999. 1. 4)에서는 21세기에 남을 한국 대표 시인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한 점에서 김수영의 한국시 사상의 위상이 확인된다. 한편, 김수영의 문학적 의미에 대한 폭넓은 연구(김유중 399-437)에서 드러나듯이 김수영은 오히려 사후에 더욱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시가 번역되어 세계에 널리 소개되는 일은 곧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일이다.

이 논문은 일종의 번역비평으로서 맥캔(McCann 60-63)에 수록된 김수영 시의 영역을 원시와 비교하고 검토하여 번역의 질을 평가하고 오역을 가려냄으로써 최적의 번역을 지향하고 바람직한 번역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본론의 논의에 앞서 필수적인 선행작업으로서 김수영 시의 본질을 간략히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 문학사에서 1970년대, 1980년대를 거쳐오는 동안,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은 이율배반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김수영의 시에서 현실참여적인 경향과 모더니티 확보와 연관된 고민과 모색의 흔적들이 동시에 발견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즉 김수영은 리얼리티와 모더니티를 기존의 대립적인 관념으로서 파악하기보다는 그의 특유의 긴장된 세계 인식 속에서 이 두 개념이 넘나들면서 상호 이해와 소통의 발판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는 「조정의 노래」(1946)를 발표한 이후 마지막 작품 「풀」에 이르기까지 173편의 시와 시론을 발표하였으며, 해방 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시인에 속하는 그의 문학적 업적은 「반시론」으로 요약된다. 이 시론은 언어를 통하여 인간성 회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초현실주의 정신에 투철한 것이다. 그는 언어와 자유, 갈등과 직관을 날카롭게 결합시킨 최초의 시인이기도 하여 초기 시부터 타계하기 직전까지 시적 주제로서 끈질기게 탐구해 온 자유를 시적, 정치적 이상으로 여겨 이것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여건들을 시화했다.

그의 초기 시는 8·15 해방 뒤 40년대 후반에 해당하는 시기인 <후반기 동인> 시절의 시이다. 예컨대, 「예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의 작품 역시 당시의 다른 모더니스트의 작품들처럼 표현방법이 추상적이고 직설적이라는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음악적인 구조로써 쾌적한 리듬을 얻어 독자의 청각을 자극할 수 있었던”(김현승 58)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는 박인환 등과 더불어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함창』(1948)을 내면서 시단의 이른바 모더니즘파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40년대 김수영을 비롯한

우리나라 모더니스트들은 주로 영미모더니즘의 내용 즉 문명비판과 사회풍자에 열중하였다.

50년대 중엽에 들어와서 그는 새로운 변모를 보여주어 첫 시집 『달나라의 장난』(1959)에서 아름답고 개성 있는 시편들을 통하여 그의 시적 역량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눈」에서 종래의 직접적인 진술의 방법을 말끔히 지양하고 관념에서 연상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시인의 소신을 강조한다.

김수영이 우수한 시적 재질과 안목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한국시에 사려 깊은 방향을 제시한 것은 6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즉 「참음은」과 같은 작품에서와 같이 의미와 관련이 없는 이미지와 이미지를 비약적으로 전개하는 이른바 쉬르의 기법을 보여주면서도 내용과 함께 형식, 형식과 함께 내용을 강조한 그는 이러한 시론을 자신의 작품으로써 표출하였다. 예를 들어, 「현대식 교량」은 김현승(김현승 64)이 지적했듯이 “애정과 이해의 다리를 놓음으로써 현대의 정신적 단절상태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데, 풀이해서 보면,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자기의 임무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의 시를 흔히 “행동의 시”로 보는 까닭은 서정적 감정이나 심미감 같은 제한된 감각에만 호소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몸, 의지, 정신, 경험 전체의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움직임으로써 그의 시가 씌어지고 읽혀지기 때문이다. 김수영의 시는 대체로 4·19를 계기로 하여 변모하였으며, 이는 「푸른 하늘을」, 「기도」 등의 과도기적 작품을 거쳐 『52인 시집』(현대한국문학전집 18)에 수록된 11편의 시에서 확인된다. 그의 시는 4·19를 체험하고 그 희망의 좌절을 체험했으면서 그 좌절이 최종적인 것 같은 느낌에 시달리면서도 그 순간을 잊지 않는, 시인의 삶의 역정에 뿌리를 두었다.

## 2. 김수영 시 영역 분석

### 2.1. 예비적 고찰

김수영 시의 본질은 이미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으며 본고는 이 번역시집

(McCann 131-140)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김수영 시 번역에 참여한 번역자는 Ellie Choi, Young-Jun Lee, Brother Anthony of Taizé, Kevin O'Rourke<sup>2)</sup>이며 이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면서 영어를 제1외국어로 하는 번역자, 영어를 모국어로 하면서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하는 번역자들이다. 이들이 공동으로 모여 번역할 수 있었다는 점과 번역자가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로서 문화적 소양과 언어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은 번역하기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번역자들은 작품을 번역하기에 앞서 도입부(McCann 131)에 김수영의 생애와 시 세계를 소개하고 있어서 번역을 읽는 독자들이 작품을 쉽게 이해하도록 독자를 배려하고 있다. 이것은 김수영의 번역시를 고찰하는 데에도 좋은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 2.2. 원시와 번역시의 비교

### 1) 「풀」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2) 번역시집 첫머리에 소개된 번역자들 가운데 Ellie Choi(EC)와 Young-Jun Lee(YJL)는 Harvard University, Brother Anthony of Taizé(BA)는 서강대학교, Kevin O'Rourke(KO)는 경희대학교에 소속된 것으로 밝혀져 있다. 짐작컨대, Ellie Choi와 Young-Jun Lee는 한국어를 모1국어로 하면서 제1외국어로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이고 Brother Anthony of Taizé와 Kevin O'Rourke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면서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하는 사람들로 보인다. 이 중 Young-Jun Lee는 2006년 6월 18일 서울대학교와 하버드대학 공동으로 주최한 번역워크숍에서 발표자로 참여한 바 있고 그 당시 하버드대학 한국어학과에 박사학위과정 중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Kevin O'Rourke는 아일랜드인으로 경희대학교 영문과 교수로서 적극적인 번역활동을 전개해 온 번역자이며 『영어로 보는 한국의 명시·명시조』(우일사, 2001)를 공역한 바 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밭목까지  
밭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Grass

The grass lies down. It fluttered  
in the driving rain of the east wind,  
and now it lies,  
cries,  
cries all the more  
for cloudy skies,  
lies.

The grass lies:  
lies more quickly than the wind,  
cries more quickly than the wind,  
rises before the wind

On cloudy days the grass lies;  
lies  
to its ankles,  
to the soles of its feet;  
lies later than the wind,  
rises before it;

cries later than the wind,  
 laughs before it.  
 On cloudy days, the roots lie.

보편적으로 작품 읽기는 열려 있는 것이어서 독자에 따라 달리 읽혀지기 마련이므로 이 시 역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시의 주어는 풀과 바람이지만 바람은 비교를 위한 종개념이니 만큼 풀이 주어이다. 풀과 바람은 사실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고 풀은 민중, 혹은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바람은 사회를 비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의 번역자인 오록 교수가 「풀」을 해석하면서 “독재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는 한국 국민을 상징하는 시로서 사회적, 정치적 문화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한국인이 아닌 독자들이 이것을 읽어내는 데는 문제가 있음”(McCann 131)을 지적하고 있다.

짙막한 한 편의 이 시는 풀의 생리와 운명이 일체의 군더더기가 배제된, 거의 완벽한 언어절제를 통하여 표현되고 있다. 모든 사물 중에서 풀은 가장 여리고 보잘 것 없는 비천한 미물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처받기 쉬운 동시에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자연물이다. 이런 풀의 본질을 꿰뚫어 본 시인의 직관력은 마침내 박진감 있는 표현을 통하여 시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시인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듯한 이 비천한 생명으로서 “웃고 울며, 일어나고 눕는” 풀이 결코 다른 사물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독자적인 개성을 갖춘 실존의 모습으로 확인한다. 이 시의 2행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The grass lies:/lies more quickly than the wind,/cries more quickly than the wind,/rises before the wind”는 행위 주체자의 자유 의지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시는 풀 혹은 풀이 상징하는 존재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즉 모든 사물은 그것이 비록 하찮은 것일지라도 결코 무시되거나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랑의 주제가 시적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이것이 곧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풀」이 오늘날까지 높이 평가되고 있다.<sup>3)</sup> 전체적으로 보면, 문장이 극히 간결한데다가 애매모호한 어휘가 없으므로

3) 김춘수는 “이 시가 관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 관념을 느끼게 해주고

번역등가를 찾아내기는 결코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자가 한국어 구사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주는 부분은 시 전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눅는다”는 내용을 “누워있다”와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채 번역된 점이다. “눅는다”는 움직임은 나타내는 자동사이므로 “lie down”으로 해야 되며 상태를 나타내는 자동사 “lie”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시의 1연 3행, 7행과 2연 1행 및 3연 1행, 2행의 “lies”는 “lies down”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어휘가 원시에서 반복법을 통한 강조의 효과를 내고 있는 만큼 번역에서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1연 2행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풀은 눅고”에서 “나부껴”는 “나부끼며”의 의미에 가깝다. 그런데, 풀은 나부끼면서 동시에 눅는 것이므로 시제로 보아 과거형 “fluttered”보다는 습관현재형인 “flutters”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1연 4행의 “드디어”와 6행의 “다시” 등이 번역되지 않은 것은 원시에서 노리는 시적 강조의 효과를 번역에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형태적으로 보아, 원시의 총3연은 번역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어법의 다름으로 인하여 원시의 총18행은 번역시에서 총20행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것은 1행과 2행 “The grass lies down. It fluttered/in the driving rain of the east wind,”와 3행과 4행 “and now it lies/cries,”와 6행과 7행 “for cloudy skies/lies.” 등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원시와 비교했을 때 내용면에서 혹은 형태면에서 원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전통적 번역이론에서 중요시되는 원칙이다.

그리고 원시의 특징의 하나는 “풀이 눅는다, 날이 흐려서, 빨리, 먼저” 등의 반복을 통하여 주술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즉 “풀은 눅고 그리고 운다”는 사실과 “풀은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인데, 이 모든 일이 흐린 날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복법은 “The grass lies down. It fluttered”, “for cloudy skies”, “all the more”로 각각 옮겨져 있어 원시의 의미가 비교적 잘 전달되고 있다. 다만 “more quickly”는 “earlier”(시간적으로 먼저)로 번역했어야

---

있는 것은 내포와 긴장이 아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높이 평가되는 것으로 보고 “관념과 예술성이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김춘수 92)고 작품의 가치를 언급하였다.

한다. 그러나 관점에 따라서는 행동이 빠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오역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王宮 대신에 王宮의 음탕 대신에  
 五十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越南과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二十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웅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情緒로  
 가로놓여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第十四野戰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어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어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있다 絶頂 위에는 서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접한 것이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응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二十원 때문에 十원 때문에 一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一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나  
바람야 먼지야 풀야 나는 얼마큼 적으나  
정말 얼마큼 적으나……

#### Emerging from the Old Palace One Day

Why...do I get riled at the small things,  
instead of that imperial palace, at the dissipation in the imperial palace,  
riled that for a fifty-*wŏn* short rib I got a piece of fat  
riled so narrow-mindedly, cursing the sow-like wench who owns the  
*sŏllŏngt'ang*\* shop,  
so narrow-mindedly cursing,

unable once to firmly resolutely  
demand freedom of speech for an arrested novelist,  
protest the sending of troops to Vietnam,  
...do I instead loathe the night watchmen who  
visit three-four times a night for twenty *wŏn*?

My narrow-minded tradition, so eternal, is now  
Strewn before me emotion.  
...in which case such things are seen:  
Once in Pusan at the Fourteenth Field Hospital POW station  
An intelligence officer watching me folding gauze bandages making

bandages with nurses

Taunted me, wouldn't I rather be a POW officer, was this any work for a man?

There, right in front of the nurses.

What I defy even now is no different

Than this making of sponges, this folding of gauze.

Given over to a dog's howls after hearing its cries,

Given over to a newborn's fretting, the blood on its head still not dry,

The falling gingko leaves, too, are thorn fields on which I tread...

I am anyway moved to the side, not the summit,

In any case moved slightly to the side,

Aware that my being slightly to the side is

Also slightly a cowardly thing!

I can not therefore help but rail in this narrow-minded manner

At the barber,

Not able to rail against the landowner so at the barber,

Not able to rail against the ward office worker, nor council member,

So at the night watchmen for twenty *wŏn*, for ten... for one *wŏn*,

Is it not ludicrous? For one *wŏn*?

Oh sand, how insignificant am I

Oh wind, dust, grass, how insignificant am I,

Just how insignificant am I?

위의 시는 “언어경제와 압축에 의한 절제가 결여된, 어찌 보면 장황하고 군 소리가 많은 시”(신경림 334)이다. 시의 메시지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시가 되어야 할 부분이 대부분 무시되어 있으며 행을 갈라놓은 산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는 “내용도 없고 소시민적 자학적 뉘두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문체도 「풀」이 명쾌하게 스타카토로 툭툭 끊어져 있어 상쾌한 맛을 주고 있는데 비하여 느슨하게 흩어져 있다.”(김춘수 95)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五十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시적 대상 속에 삽입한 그의 정신적 건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의 다른 산문에서처럼 구체적인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비록 그 경험이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의 구성체라는 데에 중심이 놓인다고 할 때, 결국 이 시가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 순결성을 지향하는 소시민의 갈등과 고뇌의 청교도적 표백”(신경림 334)임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시의 제목 “Emerging from the Old Palace One Day”는 “Coming Out from the Old Palace”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시적 화자가 고궁에서 나온다는가 어둠 속 혹은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연부터 거침없이 쏟아내는 직설적인 언술, 심지어 욕설까지 활용한 메시지가 강한 시이고 보니, 번역자인 엘리 최는 흔히 시 번역에서 부딪치게 되는 어휘 선택의 어려움을 일단 면하게 된다. 그것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Why...do I get riled at the small things,”와 “저 王宮 대신에 王宮의 음탕 대신에 instead of that imperial palace, at the dissipation in the imperial palace,”와 “五十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riled that for a fifty-wŏn short rib I got a piece of fat”와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같은 주인한테 욕을 하고 riled so narrow-mindedly, cursing the sow-like wench who owns the sŏllŏngt'ang\* shop,”와 “옹졸하게 욕을 하고 so narrow-mindedly cursing,”과 같은 문구에서 확인된다. 다만 “Why ... do I ~”에서 2연의 “... do I instead ~”와 3연의 “... in which case ~”와 6연의 “for to ... for one won”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줄임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자들이 하여금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번역자가 택한 시적 의장(意匠)으로 볼 수 있다.

2연에서 특히 강력한 시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이 시적 언술이야말로 당시 한국의 정치·사회·문화적 현상을 시로써 대변하는 커다란 이슈 즉 “불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demand freedom of speech for an arrested novelist”, “월남파병에 반대하는 protest the sending of troops to Vietnam”은 김수영이 행동주의 시인임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다.

이 시가 호소력이 있는 이유는 5연 때문이다. 내용은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있다 絶頂 위에는 서있지/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있다/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비겁한 것이라 알고 있다! I am anyway  
moved to the side, not the summit,/In any case moved slightly to the  
side,/Aware that my being slightly to the side is/Also slightly a cowardly  
thing!”인데, 이 대목에서도 애매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는 어휘는 없어서 번역  
등가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시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경험은 비단 시인 자신만 겪은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 시의 감동의 원천은 그런 보통 사람들의 갈등과 고뇌를 대변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시에 내재하는 리듬 즉 낮은 톤과 리듬으로 시작하여 절정에서 높은 톤과 급박한 리듬으로 끊는 기법은 치밀한 계산에 의한 창작시임을 짐작하게 하며 이 시를 돋보이게 한다.

이 시는 김수영의 다른 시에 비하여 일상어를 활용한 비중이 큰 산문시이기 때문에 번역자는 대체로 어구에 착실히 맞추어 번역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이 원문과 의미상 차이가 생겨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 즉 4연 4행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를 “Given over to a newborn's fretting, the blood on its head/still not dry”로 번역한 경우가 그것이다. “애놈”은 “갓난아기”를 뜻하는 “newborn”보다는 “infant” 혹은 “child”로 번역해야 한다. 또한 “머리에 피도 안 마른”을 “the blood on its head still not dry”로 번역한 것은 적합한 번역이 아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은 관습적 표현으로서 한국의 오랜 문화적 전통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어서 이 말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가능한 의역이 필요하다. 이 말이 뜻하는 바<sup>4)</sup>는 문맥상 “아직 어린” 즉 “still too young”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합한 만큼 위와 같은 번역으로는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마지막 연에서 원시에 없는 감탄사 “Oh”를 첨가한 것도 특기할 일인데, 이것은 원시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살리는 데에 한몫하고 있다. 마지막 연 “정말 얼마큼 적으나……”를 “Just how insignificant am I?”로 옮긴 것은 원시의 의미를 정확히 살린 의역이라 할 수 있다. 적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양 혹은 크기를

4) 이 말은 보통 한국적 관습으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른의 일에 끼어드느냐?”와 같이 쓰여 “아직 철이 들지 않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뜻하기보다는 존재의 가치가 하찮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편, 문맥상 원시에서 쓰인 부호 “……”이 갖는 의미 또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는 뜻에서 상대방의 상상에 맡김과 동시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도 한데, 번역에서는 물음표로 처리함으로써 원시의 뉘앙스는 반감된 셈이다.

아울러 특기할 것은 한국의 음식문화를 나타내는 “설렁탕집”을 “*söllöngt'ang\* shop*”으로 소리 나는 대로 옮기면서 이탤릭체로 차별화하여 드러내고자 하였고, 화폐단위인 “원”을 소리 나는 대로 “*wön*”으로 옮기면서 이탤릭체로 표현한 점이다. 이러한 번역태도는 이 어휘들이 각각 한국의 음식문화와 화폐문화를 대변하고 있고 영미문화에 없는 어휘이므로 한국문화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역자의 기본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울러 3연의 “전쟁의 포로”를 대문자 “POW”로 나타낸 것도 한국전쟁을 부각시키는 데에 충분히 효과가 있는 번역이다.

### 3) 「미인」

—Y여사에게

美人을 보고 좋다고들 하지만  
美人은 자기 얼굴이 싫을 거야  
그렇지 않고야 미인일까

美人이면 미인일수록 그럴 것이니  
미인과 앓은 방에선 무심코  
따놓는 방문이나 창문이  
담배연기만 내보내려는 것은 아니렀다

A Beauty

Though they say it's great to see a beauty  
She might not like her own face  
If not, how could she be a beauty?

The more beautiful she is, the more she must be so

When we are with her  
 The reason we happen to open the door or the window  
 is not to let cigarette smoke out only  
 is it?

이 시는 「먼지」, 「성」과 거의 동시에 창작된 김수영의 말년의 작품이다. “Y 여사에게”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시는 2연 9행으로 구성되었는데, 끝행 “아니렇다”가 反語인 동시에 이 시 전체가 反語이다.<sup>5)</sup>

이 시는 Y여사와의 만남을 계기로 한 것이다.<sup>6)</sup> 여기서 “미인의 향기”는 Y 여사 혹은 시인의 것이 아닌 “다른 입김” 즉 거기서 참된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입김이다. 김수영은 노래가 욕망이 아니라는 것, 격한 노래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런 경지임을 릴케시를 통하여 터득한 것이다.

이러한 창작배경을 지닌 이 시의 번역자 이영준은 확실한 설명이 없이 부제 “Y여사에게”를 번역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시에 충실하지 않은 증거이다. 총 2연 9행의 형식은 원시와 동일하나 “If not, how could she be a beauty?”와 “is it?”에서와 같이 역자 임의로 원시에 없는 부호 “?”를 첨가한 것은 그의 다른 번역시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절대적 의문문으로서 반어적인 시의 분위기를 살리는 데에 적합하다. 2연의 “The more beautiful she is, the more she must be so”에서 “must be so”는 문맥상 “could be so”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5) 그가 「반시론」에서 “나의 이런 일련의 배부른 시는 도봉산 밑 豚舍 옆의 날카롭게 닳은 부삽 날의 반어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주목할 만하며 이 시의 해석을 뒷받침한다.(김윤식 296-297 참조)

6) 그 이야기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그는 화식집 이층의 아늑한 방에 앉아 조용히 세상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피운 담배연기가 자욱해져서 Y여사는 살며시 북창문을 열어두었으며, 그것을 본 그가 미안해서 더 열어놓았다. 미인이 조금 연 북창문을 그가 좀더 연 사건이 시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그가 읽던 하이데거의 「릴케론」과 릴케 시 「올페우스에 바치는 송가」의 제3장이 필요하였다. 릴케는 “참다운 노래가 나오는 것은 다른 입김”이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입김”이며 “신의 안을 불고 가는 입김”이라고 읊었거니와 김수영은 그가 북창문을 연 것은 미인의 훈기를 내보내려고 한 행위라고 해석하였다.(김윤식 296-297)

## 4) 기타 번역시편

이밖에 『엔카운터(The Journal Entercounter)』지7), 「잔인의 초(Vinegar of Cruelty)」, 「性(Sex)」, 「하 …… 그림자가 없다(Ha……No Shadows)」 등8)이 있는데, 본론에서 다른 내용과 공통점이 많고 작품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서 지면의 제한이 있으므로 원시 및 번역시를 인용하는 것은 생략한다.

이 시편들 역시 세상은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이지 세상살이에서 초연하거나 뛰어난, 요컨대, 특별한 사람들의 것은 아니라는 인식 아래 창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들의 감동은 보통사람들의 갈등과 고뇌를 대변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 시편의 번역에서도 앞에서 이미 살펴 본 번역시편에서 드러난 공통점이 드러난다.

## 3. 결론

이 논문의 목표는 전통적인 번역이론과 문화번역이론을 아울러 번역물에 적용하여 번역의 적합성을 헤아려보는 것이었다. 현실참여시로서 메시지가 강한 시라는 김수영의 시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논의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수영 시의 시어의 상당수가 일상어여서 일 대 일의 번역등가를 찾아내는 일은 번역자들에게 비교적 쉬운 편이었을 것이다.

둘째, 원시에서 활용한 반복법이 번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셋째, 한국어와 영어의 어법의 다름으로 인하여 형태를 바꾸어 번역하였다.

7) 특히 엔카운터는 『엔카운터』誌를 소재로 한 시인데, 이 잡지는 스티븐 스펜더 주간의 영국 고급 월간지로서 김수영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잡지이다. 이 잡지는 김수영이 이오네스쿠의 연극, 이브 본느프와의 비평 등 세계를 읽을 수 있는 창문의 역할 즉 그의 번역의 원천이 되고 창작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8) 『엔카운터(The Journal Entercounter)』지, 「잔인의 초(Vinegar of Cruelty)」, 「性(Sex)」는 이영준이, 하 …… 그림자가 없다(Ha……No Shadows)」는 타이제(Brother Anthony of Taizé)가 번역했다.

넷째, 들어쓰기나 문장부호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첨가하여 시의 분위기를 살리려는 노력이 보였는데, 이것은 전통적 번역방법과는 거리가 있는 번역태도이다.

다섯째, 한국적 전통을 표현하는 낱말은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이탤릭체로 표시함으로써 한국문화의 특성을 살리는 방법의 하나로 택한 것도 주목된다.

여섯째, 시가 반어적인 경우에는 절대적 의문문을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살렸다.

한편, 원시에 있는 내용을 번역자 임의로 삭제했는가 하면, 관습적 표현을 어구에만 의존하여 번역함으로써 그 본래의 의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게 오역하는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상당수의 오역이 발견되는 것은 번역자의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능력의 부족에서 온 결과이다. 비록 번역자가 한국인이라 해도 세대간의 격차가 있어서 전통적인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국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다.

김수영의 번역시가 수록된 번역시집의 편찬 의도가 한국문학 및 문화를 정확하게 외국에 소개하려는 데에 주목적을 둔 것인 만큼, 번역 실무에 참여한 다수의 번역자들 역시 이러한 편집 의도를 간파하고 그들 나름대로 번역 대상 작품에 대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번역에 충실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의 한계를 드러낸 것은 양국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번역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한국문학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역자의 한국문학 및 한국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한국어 구사 능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최적의 한국문학 번역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 미진한 문제는 이들의 번역시가 외국인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외국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므로 후속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권영민, 1994. 『한국현대문학대계』, 서울: 민음사.
- 김대행, 1976. 『한국시기구조연구』, 서울: 삼영사.
- , 1981. 『한국시의 전통연구』, 서울: 개문사.
- 김수영, 1983. 『김수영전집』(시), 서울: 민음사.
- 김유중, 2007. 『김수영과 하이데거』, 서울: 민음사.
- 김윤식, 1983. 「김수영 변증법의 표정」, 『김수영의 문학』, 서울: 민음사.
- 김재홍, 1997. 『시학사전』, 서울: 고려대 출판부.
- , 1986. 『한국 현대 시인 연구』, 서울: 일지사.
- 김춘수, 2002. 『김춘수 사색사화집』, 서울: 현대문학사.
- 김현승, 1983. 「김수영의 시사적 위치와 업적」, 『김수영의 문학』, 서울: 민음사.
- 김효중, 2002. 「문학작품 번역과 세계관」, 『비교문학』 28집. 한국비교문학회.
- 시사영어사, 1993. 『영한사전』. 서울: 시사영어사.
- 신경림, 2002. 『시인을 찾아서』, 서울: 우리교육.
- 오록, 케빈, 2001. 『영어로 보는 한국의 명시·명시조』, 서울: 우일사.
- 오세영, 2001. 『한국 현대시 분석적 읽기』, 서울: 고려대 출판부.
- 이기문, 1995.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 정한모, 1981. 『한국현대시의 정수』, 서울대 출판부.
- <조선일보> 1998. 7.31 및 1999. 1. 4.
- 한국영어영문학회, 2002. 『영한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 Bassnett S./Lefevere, A. 1998. *Constructing Culture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Barnwell, K. 1980.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Translations*. Harsleys Green, England,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 Derrida, J. *Positionen*, 1986. *Gespräche mit Henre Ronse, Julia Kristeva. Jean-Louis Houdebine, Guy Skarpetta*. Hrsg. v. Peter Engelmann. Edition Passagen 8. Graz/Wien: Bühlau.
- Göhring, H. 1999.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in: M. Snell-Hornby/H.

- Hünig/P. Kussmaul/P. Schmitt(Hrsg.), *Handbuch Translation*. Tübingen.: Stauffenburg,
- Heinichs, 1998. *Entwurf systematischer Kulturtheorie*. Krems: Donau U (=Workshop, Kultur, Wissenschaften. 2).
- Koller, W. 1997.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5. Heidelberg: Auflage. Quelle & Meyer(=UTB 819).
- McCann, D, 2004. *The Columbia Anthology of Modern Korean Poetry*, New York: Columbia U P.
- Newmark, 1980. *Approaches to Translation*, Oxford,: Pergamon P.
- Floros, G. 2001. “Zur Repräsentation von Kultur in Texten”, in: G. Thome et al.(Hrsg.), *Kultur und Übersetzung*.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Abstract]

### **A Study on the English Translation of Soo-Yeong Kim's Poems**

Kim, Hyo Joo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analyzing various aspects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Soo-Yeong Kim's Poem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urn out as follows:

Translators' efforts to keep the original intact and to translate as faithful as possible are to be seen throughout their translation works. Their achievements as translator deserve fair and proper evaluation. They make frequent use of many devices such as the indention, addition, or deletion, italic type, shift of signs for the read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Korean Culture.

It is the distinguishing features of Kim's poetic diction that he used common words. And their translation method is principally a literal rendering. However, they translate freely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Even though, some parts of English Version don't perfectly replace their Korean counterparts to meet the convenience of non-Korean readers. Sometimes, this leads to unsatisfying result, since while doing so, the translation may damage its pure atmosphere and fine nuance of the original.

In order to enhance the literary atmosphere of the poem, translators convert the refrain into the english end rhymes. Besides, they take the advantage of the indention and facultative modification of sentence marks for the purpose of raising the comprehensive faculty of foreign readers.

The importance of literary translation cannot be over-emphasized in this global age. As stated above, English Version proves the difficulties of the translating Korean literary works. However, one of the best ways is the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especially, Korean poems for the understanding Korean high-graded culture and literature.

▶ Key Words: common words, cultural context, free translation, literal translation, literary translation, original, poetic diction, translation method

김효중

대구가톨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glarakim70@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이론 및 번역비평

논문투고일: 2008년 1월 16일

심사완료일: 2008년 2월 23일

게재확정일: 2008년 3월 8일